

하나님과 사귀는 성도, 하나 되어 모이는 교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육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일서 1장 3절

I. 성결교회 BCM세계관

현대인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수많은 주장들이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도래한 뉴노멀 시대는 우리의 생활패턴을 비롯하여 이 사회를 바로 보는 시각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왔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다음세대들에게는 과연 무엇이 가장 시급할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성결교회 BCM 세계관” 교육이 필요한 때다. 이에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교육부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여름(계절)교육주제를 성결교회 “성결한 그리스도의 몸BCM” 교육과정에 맞춰, 아래와 같이 구성하고 5년간 기독교적 세계관 강화를 위한 성결교회 양육 시스템으로 “성결교회 BCM 세계관” 교육을 실시한다.



2021~2025년

“성결한 그리스도의 몸BCM” 교육주제 - 성결교회 세계관 강화를 위한 성결교회의 양육

2021년 지혜 -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 말씀의 지혜를 배우는 교회(잠 9:10)

2022년 자족 -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 은혜로 만족하는 교회(시 23:1)

2023년 교제 - 하나님과 사귀는 성도, 하나 되어 모이는 교회(요일 1:3)

2024년 건강 -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통전적인 ‘건강’한 삶(가제)

2025년 정의 - 재림의 소망 가운데 펼쳐지는 ‘정의’로운 삶(가제)

현대 성도들의 삶의 현황과 과제들은 각각 삶과 교회 사역의 특정 분야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서로 다른 독특한 문제 양상을 지닌다. 그러나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은 흥미롭게도 다섯 가지 삶의 현황은 서로 논리적인 연관성을 가진다. ‘무지, 탐욕, 고립, 병듦, 불의’들은 서로가 원인이면서 동시에 결과로서 작용된다. 마찬가지로 삶의 과제도 상호 관계적이다. ‘지혜, 자족, 교제, 건강, 정의’들도 역시 상호 인과적인 관계로서 설명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5가지 현황과 과제들이 모두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현황과 과제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준점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까이 하는가?’이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개인과 공동체는 건강하고 행복하며 성장하는 삶이 펼쳐진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나아가는 개인과 공동체에는 그러한 삶이 열리지 않는다. 결국은 방향성의 문제이다. “어느 곳을 향하여 서 있는가? 어디를 바라보는가? 어떤 생각으로 사는가?”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 이 방향성이 바로 세계관(worldview)이다.

‘성결교회의 BCM세계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나라를 소망하며, ‘무지, 탐욕, 고립, 병듦,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지혜, 자족, 교제, 건강, 정의’의 삶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현대인은 거의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 하나님 없이 탐욕적인 경쟁의 사슬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고립된 삶을 살게 되고, 외로움에 힘들어 한다. 결과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병든 삶을 경험하게 된다. 세상은 더욱더 공정하지 않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현대인은 불의한 삶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성결교회 BCM세계관”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가르친다. 그리고 무한경쟁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탐욕을 절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고립된 삶을 이겨내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더불어 주변 사람들과의 공동체적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삶으로 전인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주변의 여러 상황들과 함께 치유를 경험한다. 전인적인 건강은 올바른 세



계관을 통해 더욱 구체화 되고 하나님나라를 소망하는 가치를 얻게 된다. 올바른 가치는 불의한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힘의 원동력이 된다.

“성결교회 BCM세계관”은 특별히 성장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삶의 지침과 비전을 형성하게 한다. 올바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혜, 자족, 교제, 건강, 정의” 이 다섯 가지의 키워드로 바라볼 “성결교회 BCM 세계관”은 향후 교단의 5년 동안 시행될 교육주제다. 5년 동안 차근차근 세계관 교육을 시행하면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반드시 건강한 결실의 삶을 살 수 있다.

2023년 “성결교회 BCM세계관”의 주제는 ‘교제(koinonia)’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연대하고 삶을 나누었던 교회의 결속은 다소 해이해졌다. 교회와 신앙의 개념을 쌓아가야 할 유아~청소년 시기 세대들의 양상이 더욱 그러한 듯하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들이다. 교회는 몸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며 이 땅에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 공동체의 영향력을 경험하여야 한다. 코로나 이후, ‘우리가 왜 교회로 모이는지’ 알지 못하는 세대를 향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성도의 사귄을 가르치므로, 그들 역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지체되어 누릴 수 있는 교제와 그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성도 서로 간에 나눌 수 있는 격려와 위로와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2023년 “성결교회 BCM 세계관”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사귀는 성도, 하나 되어 모이는 교회” 교육을 통해 성결교회 유아, 어린이, 청소년들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교제에 대한 귀한 가치를 얻기를 소망한다.

II. 교제(koinonia)의 성경적 원리

전통적으로 교회론에서 교회는 ‘예배’, ‘선포(전도)’, ‘교육’, ‘봉사’와 더불어 ‘교제’의 다섯 가지 사역을 수행한다. 교회의 본질은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정당하게 집전되는 것에 있다.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성령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는 삼위일체론적 교회 이해다. 이러한 교회는 단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을 속성과 특징으로 삼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사역을 수행하며 기능한다.

교제는 이러한 교회론적 구조 안에서 교회의 기능 중의 하나로 이해해야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교제는 교회의 본질과 정의, 그리고 속성의 관점에서 전망하고 이해할 때, 교회론적 교제를 온당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교회론적 개념이 담겨있지 않은 교제는 오히려 신앙공동체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본래적 성격을 호도하고 곡해할 수 있다.

통전적인 교제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뜻으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도의 나눔과 교제(행 2:42)’가 대표적이다. 기독교의 교회론적 교제 개념은 단지 감정의 교류와 교감을 넘어서 ‘소유의 나눔’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코이노니아는 가정공동체와 같이 ‘함께하는 삶’(life together)을 이상적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교회의 교제가 함축하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이중적 구조’의 교제라는 것이다. 즉,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 공동체의 교제는 인간과 인간의 수평적 차원이라는 일차원적 교제이다. 그러나 교회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과 동시에 ‘성도들의 교제’라는 ‘수직적인 차원’(vertical dimension)과 ‘수평적인 차원’(horizontal dimension)의 이중 교제라는 점이다. 교제의 두 차원은 항상 유지되어야 하지만, 수직적 차원의 교제 즉,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다.

교제의 근거

첫째로, 교회의 기능으로서 교제가 가능한 것은 성도 개개인의 인격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즉, 성도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중교제가 가능한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히 10:19-25)의 공로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성도의 교제의 본질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허물어졌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고 선언하셨고, 내면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신생의 은총을 허락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은혜를 주셨다. 중생의 은혜 가운데, 자범죄를 사함 받은 인간은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케 된 인간은 동료 인간들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교회로 모이게 되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그리고 성령의 새로운 피조물들로 인간과 인간은 하나가 되었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로,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과 인간 간의 교제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하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고 인정한 인간에서 말씀을 주셔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말씀묵상을 통하여 날마다 깨닫게 된다. 말씀의 떡을 먹고 성도의 교제는 더욱 든든해진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성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성도의 교제로 교제의 지평을 넓혀간다.

셋째로, 기도가 있다. 기도는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제이다. 기도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고, 탄원할 수 있으며,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동시에, 성도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禱告)를 올릴 수 있다. 서로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써, 기도를 통한



깊은 교제가 가능하다.

넷째로, 성례전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성례는 하나님의 '자기 주심'이며,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주심'에 대한 감사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간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례는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self-giving) 하나님에게 인간이 감사로 나아가서(thanks giving)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준다. 성찬이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에 강조점이 있다면, 애찬(agape meal)은 성도들이 만나서 기도와, 간증과, 찬양과 구제를 통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인간과 인간의 교제에 강조점이 있다. 애찬과 성찬이라는 교제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동료 성도들과 깊은 믿음의 교제를 나눈다.

다섯째로 성령세례를 통한 성령의 사역으로 교제가 가능하다. 성결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승천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던 성령세례의 사건으로 성령의 충만을 말한다. 오순절 성령세례는 다음과 같이 발생되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의 솟아오를 때 햇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행 2:1-4) 유전죄가 중생한 자들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잘 분노함"(창 4:5; 눅 15:29-30), "시기함"(창 4:8; 요일 3:12; 삼상 18:7-11), "고만"(약 4:6), "허영심"(갈 5:26), "이기심"(빌 2:21), "거짓말"(마 15:19), "다언(多言)" 또는 "과언"(엡 5:3-4) 등의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유전 죄로 부터의 자유함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며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즉 순간적인 성령세례, 성결의 은혜를 체험할 때에 유전죄의 뿌리가 뽑히게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성결해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뵈지 못할 것입니다."(12:14) 죄의 결과 중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단절이며 이러한 근본적인 관계의 단절은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관계 단절을 파생시킨다.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내용 중 하나는 단절되고, 고립되며, 이기적인 삶의 모습이다. 이처럼 성결의 조건은 성령세례이며 성결한 삶은 성령의 사역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성결은 관계적인 특성이 강한 신학적 개념으로 온전한 사랑은 교제의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 성결한 삶을 산다는 것은 교제의 지속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에 의하면 교제의 삶은 성령에 의한 삶으로 친교, 참여, 나눔이 실현되는 삶이다(고후 13:13).

교제의 성경적 모델

첫째, 교제의 가장 확실한 근거와 모델은 삼위일체 하나님(창 1:26; 마 3:16-17; 고후 13:13)이다. 하나의 본질과 세 위격이라는 삼위일체 공식이 교제의 모델과 근거가 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사이의 페리코레시스를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즉, 삼위 하나님의 본질에 있어서 상호 내주하시는 삼위 하나님은 교제의 참된 모습을 보여 주신다. 또한, 삼위 밖으로 사역에 있어서도, 성부는 창조 사역에, 성자는 구속 사역에, 성령은 성화의 사역을 각각 점유하고 있으나, 삼위 하나님은 순환을 통한 경세적 삼위일체 가운데 다른 위격의 사역에 동참한다. 내재적 삼위일체는 상호 내주를 통한 사랑의 공동체를 본질적으로 이루고 있다면, 경세적 삼위일체 내에서도 점유와 순환을 통하여 사역을 공유하신다. 이러한 의미에서 삼위일체는 교제의 대표적인 모델이다.

둘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것(창 1:26-28)은 교제의 근거이고 모델이 된다. 존 웨슬리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연적 형상, 정치적 형상, 그리고 도덕적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다. 이처럼 세부적인 형상까지로 나누어서 창조하신 이유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보다 세밀한 교제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본회피와 몰트만은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요소 중에서 교제를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셋째, 에텐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이룬 가정공동체가 교제의 모델이고 근거이다(창 2:18-25; 엡 5:21-32).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다. 상호 내주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정공동체라는 사랑의 공동체를 선물하셨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속에서 인간은 교제의 본질과 근거를 알 수 있다. 특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정의하는 교회론에서 더욱 극명하게 표출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고린도전서 10:16)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린도전서 12:27)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에베소서 4:12)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에베소서 1:22)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에베소서 5:23)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골로새서 1:18)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



체들이며,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들이다. 교회는 몸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가능하며, 교회 안에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로서의 성도들은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본회퍼가 정의하듯, 교회는 ‘성도의 교제’이다.

인간 구원의 목적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태초의 천지창조부터 존재했던 교제권을 회복하는 것에 있다. 이 교제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회복된다. 예수님의 중보기도(요 17:21-26)에서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III. 교제(koinonia)의 신학적 원리

고립의 삶을 벗어나 ‘교제’하는 삶으로

고립된 삶의 근본적인 원인은 관계성과 공동체성의 상실이다. 관계성과 공동체성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다. 관계들이 맺어지다 보면 결국 공동체가 형성된다. 역으로,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가면 필연적으로 관계에 연결되게 된다. 관계성과 공동체성은 매우 중요한 인간의 본성이다. 영(靈)이신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三位一體)의 관계적 존재 양식을 지니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닮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창 1:26-27)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다(It i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그래서 그에게 함께 살아가는 짝인 하와를 만들어주셨다(창 2:18). 관계성과 공동체성의 상실은 죄의 결과이다. 죄성은 사람으로 하여금 관계를 회피하게 한다. 범죄한 사람은 우선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창 3:8) 이샤야 선지자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됨을 분명히 말하였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뿐이다.”(사 59:2)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사람 사이의 관계도 어긋나게 했다. 범죄 이전에 아담은 하와를 향해,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이라는 고백을 했었다(창 2:23).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에는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였다(창 3:12).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는 모습이였다.

죄인은 자기중심성(self-centeredness)을 가지고 산다. 오직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자신을 위해서만 시간을 사용하고, 타인들과 교류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관계성과 공동체성이 상실되는 것이다. 이 점은 최근 성도들의 삶에서도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요즘 성도들은 자기중



심적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나의 지체들’에 대한 의식이 약하다. 과거의 성도들은 자신이 속한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적극적으로 헌신하였다. 그들에게는 소위 ‘교회 중심 신앙 생활’이 삶의 모토와도 같았다. 같은 소그룹 또는 교회에 속한 지체들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졌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내가 속한 교회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약화되었다.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불만족이 커졌을 때, 언제든지 소속 교회를 옮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실제로 성도들 중 76% 가량이 교회를 옮긴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교회에 대한 헌신, 충성, 희생 등이 약화되고 있다. 신앙생활을 개인과 하나님과의 사적인 관계로만 생각하게 되면서 교회생활을 위한 시간을 아까워하고 주일 대예배만 드리려고 한다.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대형교회로 숨어들어가 익명의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선호한다. 이러한 현대 신앙인을 미래학자 최윤식은 『한국교회 미래 지도』라는 저서에서 ‘코쿠닝 성도’로 명명하였다. 코쿠닝(cocooning)은 미래학자 팝콘(Faith Popcorn)이 사용하기 시작한 말이며, 코콘(cocoon)은 누에고치를 의미한다. 현대인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불안정성의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마치 누에가 고치 속에 사는 것처럼 숨어 살려 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대형교회 안에 자신을 숨기려고 하고 사생활이 교회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였던 심방(尋訪)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

고립된 삶으로부터 돌이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공동체 안에서 유대감을 나누는 사랑의 교제를 회복해야 한다. 성경에서 ‘교제’(Koinonia)는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fellowship, participation, communion). 원래 이 용어는 그리스-로마(Greco-Roman) 문화권에서 물질의 공동소유, 사업상의 동업, 신과 인간과의 교제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던 어휘였는데 바울이 선교를 위해 채용한 것이다. ‘교제’는 기독교의 본질을 잘 나타내는 용어이다. 이 말에는 2가지 차원의 관계성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요일 1:3, 6; 고전 1:9; 살전 4:17; 고전 9:23; 빌 1:5; 몬 6절; 고후 13:3; 빌 2:1). 다른 하나는 인간과 인간(교회의 지체들)과의 관계성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인간간의 교제의 전제가 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귀는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귀입니다.”(요일 1:3)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안에서 공동의 동반자 관계를 인식한다(빌 1:15; 갈 2:9).

우리의 죄성은 관계를 회피하게 한다. 죄성이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 중 관계적인 측면도 파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맺음을 기뻐하신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개역개정 시 133:1, NIV - live together in unity). 사실, 성경은 지체를 사랑하지 않고 고립된 사람은 아직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한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요일 3:14) 이 말씀에 의하면 영생을 얻은 사람은 곧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도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분의 제자 됨을 드러낼 것을 명령하셨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요 13:35). 거듭난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적 삶을 산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서로 사랑하며 제자의 공동체를 이루며 산다. 결국, 이것이 관건이다. ‘교제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교제를 거부하며 살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공동체적 유대 속에서 살아갈 것을 분명히 말한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성경의 내용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신자들의 생활이다(2:43-47; 4:32-37; 5:12-16). 그들은 교제를 나누며 공동체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 그렇다면, 그들은 원래 그렇게 관계적인 사람들이었는가? 아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도 고난이 두려워서 흩어졌던 사람들이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 떼가 흩어질 것이다”(마 26:31).

제자들이 온갖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제를 실천하며 공동체를 일군 것은 오순절 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이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지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그들이 사는 모습이 이웃들에게 호감을 샀다. 생명력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께서는 구원 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행 2:44-47).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후 죄로 인해 파괴되었던 사람들의 관계성과 공동체성이 되살아났다.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한다.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죄성으로부터 온 착각일 뿐이다. 신앙생활 역시 단독으로만 할 수 없다.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공동체적 신앙생활 간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 특히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삶을 사는 현대인들은 공동체적 신앙생활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고 그 분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일원(지체)으로서 살아야 한다.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몸 개념은 관계적-공동체적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이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관계적이며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의 현상을 보여줬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인간의 몸과 같이 작용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 몸은 확일적이지 않다.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는 다양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 모두에게 열려 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 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고전 12:13)

또한 이 공동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의해 존재의 근거를 얻는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에 의해 ‘전적인 타자’(wholly other)들이 ‘하나됨’(oneness)을 이루게 된다.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지체가 되어야 한



다. 그리고 영적, 정신적, 물질적 교제의 삶을 살아야 한다.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지체는 생명력을 잃는다. 접붙인 가지는 재배된 나무의 전체 생명을 나누는 것이다(롬 11:17). 또한 주의 만찬은 신자들이 한 몸에 참여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린도전서 11:23-26; 마 26:26-29; 막 14:22-25; 눅 22:15-20).

마지막으로 공동체적 유대를 나누는 교제의 가치를 강조한 기독교교육학자들의 주장을 덧붙이고자 한다. 이들의 견해는 공동체적 교제를 위한 교육목회를 중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넬슨(C. Ellis Nelson)은 회중 공동체 자체가 자연스러운 신앙의 전달기관이 된다고 하면서, 회중 안에서 발생하는 우정이 최상의 인간관계라고 하였다. 웨스터호프(John H. Westerhoff III)는 인간을 관계적이며 공동체적 존재로 보았다. 그리고 신앙공동체라는 장(context)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 교리교수(catechesis)라고 주장하였다. 포스터(Charles R. Foster)는 신앙공동체 안에 공유성(commonality)이 있으며, 그것을 통해 프로그램 이상의 것을 만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진젠도르프(Zinzendorf)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공동체를 통한 교제가 없는 기독교를 만들지 않는다.” 그의 말은 신앙생활의 사적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현대 신앙인들에게 경종을 울린다.

‘교제’하는 삶을 위한 교육신학

〈성결교회 헌법〉 제6조에서는 성결을 “이는 교인이 받을 성령세례를 가리킴이니”라고 정의한다. 또한 “모든 교인에게 성결의 은혜 즉, 성령세례를 전하여 교회로 하여금 기록하게”(제1조)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서 “성결의 체험을 받도록 지도”(제4조)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로써 본”(제4조)을 보이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가르친다. 중생은 일차적인 회복이다. 중생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관계 변화의 현상이 시작된다.

이차적이며 파생적인 회복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공동체, 인간과 생태계의 회복이다. 중생의 결과로서의 교제의 회복은 급진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이 시작된다. 또한 인간관계와 공동체와의 교제의 회복도 시작된다. 성결교회의 성령론의 특성은, 성령과 인격적으로 친교하고 그분과 깊은 내적 교류를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을 훨씬 더 높은 영적 수준에 이르게 하도록 강조하는 데에 있다. 비록 이것이 실천적으로 얼마나 구분되어 유지되었는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결교회의 성령론은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인의 완전 즉 성결로 표현되었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성결교회신학(상), 422).

성도는 제2의 은총인 성결을 통해 죄의 뿌리가 뽑혀 하나님과 온전히 의롭게 되며,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요일 2:28-29). 하나님과의 교제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한다. 세상을 살아갈 때 부가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부는 오히려 가정이나 공동체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전 5:9-19).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기준은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마음에 두어야 한다(잠 15:16-17). 성결한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을 신앙적 ‘교제’의 장으로 초청하는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산다. 복음주의는 영혼의 구원을 중시하여 불신자에 대한 전도와 선교를 강조한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은 능동적인 참여와 실천을 포함하며,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그와 함께 살고, 고난받고, 죽으며, 유산을 받고, 다스림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성령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보아 알 수 있듯이, ‘교제’의 삶은 세상을 향해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전도가 가능하게 한다.

웨슬리 신학은 복음적 신앙체험을 통한 확신을 강조하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의 체험은 교회나 사회적 차원에서의 체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웨슬리 신학은 복음의 사회성을 강조한다.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는 교회적 교제로 확대되어야 한다. 대 사회적 교제로 확대되어야 하며 생태 환경과의 화해와 교제, 공생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인식 교수는 『예수의 바람, 성령의 바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성결의 복음에 기초한 사랑의 윤리는 궁극적으로 사랑의 공동체 윤리로 나아갑니다. 즉, ‘하나님과 나’의 영성적 관계는 ‘자연과 나’와의 생태적 관계로, 그리고 ‘이웃과 나’와의 공동체적 관계로 맺어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적 현존에 사로잡힌 ‘나’는 더 이상 고립된 자아로 머물 수 없고, 공간적으로는 ‘자연’과 시간적으로는 ‘역사’ 안에서 모든 생명과 연대함으로써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V. 여름교육 주제 포인트

주제: 하나님과 사귀는 성도, 하나 되어 모이는 교회

주제성구: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일서 1장 3절)

단원	성경본문	주제 및 키워드
1과	사도행전 2장 1~13, 37~47절; 4장 31~37절	성도는 하나 되어 교제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2과	고린도전서 11장 17~34절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교제를 통해 하나됩니다.
3과	사도행전 11장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나누며 연합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핵심주제: 성도는 하나되어 교제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본 문: 사도행전 2장 1~13절, 37~47절; 4장 31~37절

참고말씀: 고후 13:13

교회를 세우는 성령의 사역

성령은 교회를 세우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중생과 회심하도록 역사 하셨고(행 2:37~40), 성령을 받은 자들은 사도의 세례를 받아 한 교회를 이루었다(행 2:38~41). 그들은 함께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힘썼다(행 2:42~47). 이것이 성령이 세우신 첫 교회다. 성령의 사역으로 교회가 이땅에 세워진 것이다. 이후 성령은 사도들의 복음전파를 통해 세상가운데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계신다.

성령강림과 동시에 세워진 예루살렘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는 철저히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이며 성령의 사역이다. 교회를 세우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교회를 불러모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다스리신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도신경을 통해 성령을 고백하고 그가 세우신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한다.

교회를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

성령은 교제의 영, 코이노니아의 영이시다. 고후 13:13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한다. ‘성령의 교통하심’은 성령의 교제하게 하심이라는 의미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 관계속에서도 교제의 영의 역할을 하신다. 더 나아가서 성령은 모든 성도들 개개인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다. 그러면서 성령은 성도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면서 유기적인 교제를 이루고 누릴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결국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성도의 교제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성도의 교제는 성령이 임재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의 매우 구체적인 증거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3)”고 권면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제: 말씀, 기도, 물질 나눔

사도행전 4장은 기도 중에 성령충만한 성도들이 또 다시 한마음과 한뜻으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고 성도들은 그로 말미암아 받은 큰 은혜로 자신의 집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는 데까지 이른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초대교회의 교제는 더이상 가난한 사람 없이, 풍성함과 그로 말미암은 기쁨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뿐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선교의 초석이 되었다.

두 번째 포인트: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핵심주제: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교제를 통해 하나됩니다.

본 문: 고전 11장 17-34절

참고말씀: 고전 1:9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상속받는 자들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그의 축복에 동참한다고 봤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에(빌 1:7), 복음에(고전 9:23; 빌 1:15), 약속에(엡 3:6),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고전 10:16-17), 성령에(빌 2:1; 고후 13:13), 신의 성품에(빌 2:5), 그리스도에(고전 1:9) 동참하는 자들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영적으로 동참했으며(롬 6:4, 6, 8; 갈 2:19; 엡 2:5, 6; 골 2:12, 13; 3:1; 딤후 2:11, 12), 현재 육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라고 하였다. 특히 성찬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함이다. 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일반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이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된다.

성만찬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교제

설교와 세례와 성찬은 성도의 교제로서 교회의 핵심이다. 그 이유는 이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역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공간의 간격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이다. 성육신하여 오신 말씀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선포하고, 세례와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여지고,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음으로써 교회는 참다운 성도의 교제가 된다. 예수께서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분을 함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분께서 잠기셨던 물로 세례를 받고,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식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인이 된다.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만찬을 통하여 1세기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매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타적인 공동체

성만찬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나' 뿐만 아니라 '너'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통해 타자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를 통해 타자를 바라볼수록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던 우리의 시선이 교정되고 치유된다. 교회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매개하시므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수직적 교제의 관계에 들어간 그리스도인은 생존을 위한) 상호관계를 넘어서는 '이타적 사랑'으로 타자와의 교제의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 (루터) '이타적사랑'을 기반으로 삶의 궤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언어로 전달하고 한정된 시공간에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시간이 지나며 생각과 가치관을 함께하는데 이르게 된다. 고린도교회의 부유한 자들은 함께하는 만찬에서 가난한 자들을 기다리지 않고 식사를 했다(11:18, 21-22, 33).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만찬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성만찬의 바른 의미를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세 번째 포인트:

나는 성도의 교제(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를 믿습니다.

핵심주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나누며 연합합니다.

본 문: 사도행전 11장

참고말씀: 고전 16, 고후 8, 9장

부르심을 받았으나 세상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동거동락 & 축복을 권함

베드로전서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



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3:8-9)”고 권면한다. 여기 “동정하며”(숨파테이스)는 감정을 같이함(同情)을 뜻한다. 즉 동거동락함을 의미한다(고전 12:26; 히 10:34).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적으로 단결하고 외적으로는 박해자에 대항치 말고 도리어 축복할 것을 권한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 남의 나라에서 아무런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빈대처럼 원주민에게 붙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불신자들로부터 악평과 고소를 당하고 증오와 박해를 받고 있을 때, 베드로서 저자는 수신자들을 향해, “하나님 안에서 집을 발견하라, 그러한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라”, “나그네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의 자리로 삼아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삶을 살 기회로 삼으라”고 권면했다.

성도의 교제 곧 형제사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갠힌 것 같이 갠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히 13:1-3) 그리스도를 버리고 옛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배교 위험 아래 놓은 교회를 위해 저자는 성도의 교제를 강조한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며(히 3:14), 성령에 참여하며(히 6:4),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다(히 3:1). 그러기에 그들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히 13:16). 성도의 교제는 유대교의 이웃돕기와는 다른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교제에서 오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어린 교제다.

인내하고, 그리스도인의 함께 함

바울은 수평적 교제를 “함께 with”의 복합어로 말한다. 함께 갠힌, 함께 종 된, 동역자, 동일한 시민, 함께 군사 된, 마음을 같이 해, 함께 택하심을 받은, 함께 본받음, 함께 참여함, 함께 고통 받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힘쓰고, 함께 편히 쉬고, 서로 연결해, 함께 지어져 가고, 피차 안위함을 얻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엡 3:6) 교회의 특징은 이 세상 어떤 동지에 보다 더 깊은 함께 함이다. 바울은 고전 16:1-4, 고후 8장, 9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를 위한 구제 모금에 대한 지시를 내린다. 이 구제금을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교제로 생각한다.(롬 15:27)